

과학벨트비즈니스 기능지구 청원군 오송·오창 포함

이시종 지사. 이종윤 군수 뜨거운 성원에 감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의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최종 입지 선정이 일단락됐다.

과학벨트의 몸통은 대전으로 가지만 청원군 오송과 오창이 각각 기능지구로 선정돼 그나마 서운함은 면했다는 게 충북지역 주민 인심이



다.

충북도(지사 이시종)와 청원군(군수 이종윤)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추진계획 확정안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세종시가 거점지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과학벨트 성공을 위해 충청권 공조를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밝히고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종지사는 “과학벨트기능지구 오송·오창이 포함 된것을대환영하며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

사한다”고 밝혔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우리청원군 내에 오송과 오창이 과학벨트기능지구지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윤 군수는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확정된 것은 지역발전의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오송·오창이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된 첨단산업 특구로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군수는 “오송제2산단과, 오산산업단지에 IT, BT중심의 국내외 우수기업유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전국두시간대의 접근성이

용이한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기반으로 오송·오창지역이 성장동력의 근간이 되고 기초생명과학의 토대가되는게기될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이군수는 “어려운여건속에서도 청원군민 10만명 서명운동, 쉼기대회 등 홍보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리고 158만 충북도민을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환영하며 그동안 유치활동을 전개해준 군의회, 충북공대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충북 박희상)

기자수첩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은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많은 야당의원이 당선되는 등 재미를 보았다.

이것이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은것. 여당은 무상급식이라는 호제를 생각하지 못해 선거에 밀려 참패 당했다.

후회한들 무엇 하나 내년 후년이면 총선·대선이 있는 해로 벌써부터 정치인들은 꿀뜰거리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6.2선거에서 당 대표를 지낸 J모씨가 청주에서 대선에 나갈 것을 공식 선언 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은 정답이다”

정책에 기발한 아이디어 필요

전 B대표를 겨냥 꼬집기도 하여 6.2지방선거에서 참패 시킨 장본인이 무슨 얼굴로 대선 운운 하느냐는 시민이 많았다.

이날의 일들은 집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 살펴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총무가 출범하면서 이어 대표 권한대행으로까지 올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공약이행, 그리고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는 학부모들을 고려 전국 350만 명의 대학생(2년제, 4년제 포함) 반값 등록금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기선을 제압한 데 대해 야당의원들은 만일 이것이 관철되면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 뻔하다며 신경쓰는 눈치다.

전국의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

들과 가난 속에서 해매는 국민들은 훌륭한 여당원대표가 탄생되었다며 황우여 당 권한대행을 추켜세웠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돌입한 요즘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 학부모들은 숨통이 좀 터지겠다면서 황우여 한나라당 당 권한대행의 메가톤급 정책이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당·정·청과 관계 부서 일 반 사회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기필코 반값 등록금 시대로 열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메스컴에서 보면 반값 등록금에 대해 당내에 적극 협조해야 할 몇몇 의원들이 비판의 소리가 높으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볼때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

만일 이 중대한 반값 등록금 실현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총선·대선에서 참패 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놓쳐 실패하고 땅을 치고 운다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겠는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당원이 뽕뽕 뽕뽕 황우여 원내 대표의 뜻을 따라 서러웠던 그날을 되새기며 분발해야 할 것이다.

자원 마련은 이미 지면을 통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신문 칼럼에 밝히고 있어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기필코 반값 등록금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하는 것 만이 살 길이다.

(충북 박희상)

“정부당국의지원책·동료친지 위안격려에 감사”

김민호 회장, 리비아내전 정상화 되면 공사 추진



“정부(국토해양부)당국과 도민 그리고 동료들과 친지들의 계

속된 위로와 격려에 힘을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북도내 종합건설업체중 공사수주 2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주)원건설 김민호회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민호 회장은 뜻하지 않은 리비아의 내전사태로 고충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어조로 리비아에서의 그동안의 공사 실적과 내전으로 인한 철

수사항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하루속히 리비아 내전이 종식되기를 바랐다.

김회장은 특히, 정부로부터 리비아에 진출한 중소건설사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수천억 규모의 프라이머리 부채 담보부 증권(P-CBO)을 통해 지원 해 준다는 소식에 신용도가 높은 (주)원건설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원건설은 현재 리비아로부터 건설기술능력을 받고 있는

유일한 건설사로서 평가받고 있다.

김회장은 무엇보다 내전상태에서 전 종사원이 한사람도 나오 없이 전원 무사히 철수하게 된 것이 큰 다행이면서 내전이 종식되어 정상화 된다면 계속 공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수십 없는 밝은 얼굴로 대해주는 자 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성공을 기약하는 전망을 안겨주었다.

(충북 박희상)

카메라고발

‘청주시는 교통혼잡으로 나갈 것인가?’

하상도로 통제로 교통마비, 큰 불편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로 인한 교통 대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21일 청주시가 원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무심천 하상도로를 시범적으로 전면 통제하면서 이를 모르는 시민들은 종전과 같이 출퇴근시간을 맞춰 운행했다.

이로 인해 대교4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간에 1천미터까지 정차되어 1분내지 1분50초마다 신호체제로 대교4거리를

지나려면 약 15분 내지 20분까지 지체되어이게 무슨일 이나며시 당국의 교통대책에 불만을 쏟아 냈다.

하상도로로 인해 생태계 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 단체가 서로 첨예한 대립을 놓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시 당국은 일부 소수의 환경단체의 말만 듣고 일시 시행해 나왔으나 날로 증가되는 각종 차량과 차량지연으로 인한 생계위협 등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하고 있다.

하상도로 운행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의문시 되며, 환경보호에 무슨 큰 지장을 초래 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지 시민들은 환경단체들의 그 뜻을 모르겠다며 원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주시 교통당국은 시민을 위한 교통체계를 면밀히 세워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된다.

(충북 박희상)

제8대 설비건설 충북도회 임원 구성 완료

견실시공으로 회원사 발전 다짐

지난 3월 15일 제 8대 대한설비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조탁영 회장체제로 출범 한지 2개월 만에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23일 발표 했다.

도협회는 그동안 앞으로 3년간 협회를 이끌어 갈 조탁영 회장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임원을 구성 했는데 전 장순경 회장을 본회 이사 에 그리고 부회장 2명, 운영위원 7명, 감사 1명, 본회 대의원 2명, 가스간사 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 앞으로 전회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설비건설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 했다. 새로운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충북도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상 호
회 장	조탁영	(주)남양기업 대표
부회장	배창동	(주)대경테크 대표
	정두순	(주)에스케이엔지니어링 대표
운영위원	이경호	경원세기엔지니어링 대표
	오채열	삼동기업 (주) 대표
	김영엽	(주)삼우이엔지 대표
	김중윤	일오상건설(주) 대표
	박정복	대진산업개발 대표
	이은식	정보 건 설(주) 대표
회원 감사	하대수	(주)한엔지니어링 대표
	김성배	(주)세연플랜트 대표
본 회 대의원	이종국	(주)남 향 대표
	김태원	(주)티 이 엔 대표
본회 이사	장순경	영 광 기 업(주) 대표
가 스 간 사	고을식	(주)진영산업개발 대표

(주)충북소주, 첫 지역사회발전행사 시동

오는 8월 제46회 전국기능경기 대회 후원업체로 협약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에서인수한(주)충북소주(대표이재혁)가오는 8월 30일부터 9월5일까지 청주, 충주, 증평, 제천, 소재의 6개 경기장에서 있을 2011제 46회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후원기관으로 나서 지역 발전에 첫 시동을 걸었다.

(주)충북소주는 이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산업인 조지공단은 충북지사(지사장 정희택)와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사진)했다. 경기대회 참여를 높이기위해 (주)충북소주는 시원한 청풍소주 1,000만병에 대해 엠블럼과 마스코

트, 슬로건, 대회 일정이 인쇄된 보조상표를 붙이게 된다.

이번 전국기능대회는 고용노동부, 충북도, 충북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개최된다.

(충북 박희상)